

공감과 소통으로서의 일상 미학

-칸트의 공통감과 관련하여-

김광명*

- I. 들어가는 말
- II. 일상 미학의 계기로서의 칸트의 공감과 소통
- III. 취미판단의 근거로서의 공통감
- IV. 감정의 소통가능성으로서의 공통감
- V. 맺는 말

본 논문은 전통적인 미학으로부터 일상의 미학으로의 이행의 의미를 칸트의 공통감과 관련하여 다룬 글이다. 예술과 삶의 경계가 허물어진 이후, 예술과 일상의 삶은 긴밀하게 연관되고 있다. 따라서 예술, 비예술, 반예술, 나아가 미학, 비미학, 반미학과의 경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미적인 것은 일상의 미학의 전개에 있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미적인 것은 우리의 태도와 경험에 의해 지각되며,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공감과 소통으로서의 일상의 미학을 주제로, 취미판단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공통감, 감정의 전달가능성으로서의 공통감을 다루었다. 공통감은 개별적 정서가 아니라 구성원 간에 보편적 정서를 위한 능력이다. 공통감에서의 '공통'은 '공동의, 보통의, 일상의, 평범한, 세속적인'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공통감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공동체적 감각의 이념이다. 그것은 보편적 전달가능성 및 소통가능성에 의존한다. 오늘의 미학은 일상의 미학이다. 공통감은 우리를 공감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며, 일상의 일상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주제어: 일상 미학, 공통감, 미적인 것, 공감, 소통, 일상성

1. 들어가는 말

일찍이 일상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나 관행이 예술에 결부되어 나타난 민속예술은 소박한 생활예술로 자리 잡아 왔거니와, 그와 더불어 아름답게 장식한 일상용품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이른바 전위예술 이후, 작품의 소재를 일상적 삶의 구성물에서 찾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물론 일상적 삶의 구성물을 이루는 무수히 많은 현상 및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광고, 상품소비, 대중예술, 오락, 여가, 매일 접하는 이미지나 매체 등이다. 우리는 일상이 지닌 부정적인 특성을 반복이나 권태, 피로 등으로 보면서 동시에 일상을 벗어나고자 한다. 일상에 살면서 일상을 벗어나려는 이중적 감정이나 태도를 취한다는 말이다.¹⁾ 어쨌든 일상이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익숙함'으로 쉽게 다가 온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예술과 일상적 삶의 경계가 없어지고 서로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오늘날의 예술 상황에서 미적 탐색은 전통미학으로부터 일상의 미학으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적인 것에 대한 논의는 일상의 미학의 전개와 궤를 같이 하게 된다. 일상이 예술의 영역에 깊이 들어옴에 따라 그간 침체하게 대립되었던 미학이나 반미학, 나아가 비미학 사이의 경계도 의미를 차츰 잃게 되었다.

미적 관심이나 미적 가치는 일상생활의 한 가운데에 늘 친숙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예술은 모든 삶의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 예술

* 송실대

1) 오늘날 일상성에 대해 학자들에 따라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특히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1901-1983)는 현대사회의 일상성을 탐구하며 이를 소비조합의 관료사회로 명명한 바 있다.

현상이 독립된 대상이나 활동으로 일어날 때에도 그것은 광범위한 일상생활 속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주 폭넓게 나타난다. 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다른 관심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더불어 섞여 있다.²⁾ 미적 관심은 다른 관심들에 부수하여 일어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들에 관여하며, 전체 생활에서 똑같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어디에서나 미적 관심이나 미적 가치를 비롯하여 미적인 판단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³⁾ 달리 말하면, 미적 관심이나 미적 성질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포괄적이고 보편적이어서, 그것은 늘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주변 가까이 있다는 말이다.

일상을 이끌어가는 일상성(日常性)은 매일, 그리고 자주 일어나는 일상이 지닌 특성이나 상태이다. 미적인 경험은 일상생활의 유형에 뿌리를 두고 있다.⁴⁾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예술은 일상적 사건이나 흥미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으며 그 성격상 다른 생활의 영역과도 얽혀 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혹은 생리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일상생활 속의 기능, 형태나 구조는 미분화된 전체를 이루고 있다.⁵⁾ 미분화된 전체 속에서의 미적 관심은 다른 일과 더불어 지속되고 있는 일상사이며, 극소수 개인들의 특수한 관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인 모두에게 거의 모든 생활에서의 기본적인 충동이 되고 있다. 그렇듯 예술은 인간생활에 널리 스며들어 있으며, 미적인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나 보는 인간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관심들 가운데 하나이고,⁶⁾ 우리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살아

2) 여기서 매우 독특한 성격이란 무관심성을 말한다. 흔히 무관심을 관심의 결여나 부주의로 해석하기도 하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칸트의 무관심은 아름다움의 온전한 이해를 위한 관심의 집중이요, 조화이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심의 경지와도 견주어 볼 수 있다. 무심(無心)이란 유심(有心)의 반대로서, 유심은 욕망으로 채워진 번뇌의 산물인 반면에, 무심은 번뇌를 벗어난 평온과 관조의 산물이다.

3) M.레이더/B.제섭, 『예술과 인간가치』, 김광명 역, 까치출판사, 2001, 149쪽

4) Kwang Myung Kim, "The Aesthetic Turn in Everyday Life in Korea", Open Journal of Philosophy, 2013, Vo.3, No.2, 360쪽.

5) Henri Lefebvre/Christine Levich, "The Everyday and Everydayness", Yale French Studies, No.73, 1987,7쪽.

있는 끈이다. 이렇게 이어주는 끈은 공통감(common sense, Gemeinsinn, sensus communis)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이 곧 개인 간의 전달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성을 담보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존재임을 확인해준다. 그리하여 공통감은 일상을 지배하는 중심개념이 된다. 그런데 칸트미학에서 공통감은 미적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며 취미판단의 상호주관적 타당성의 근거가 된다.⁷⁾

칸트에 있어 공통감은 공동체가 지닌 감각의 이념으로서 판단능력의 이념이며, 사유 안에서 타자(他者)의 표상방식을 반성하도록 한다. 동시에 전체 인간이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객관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판단에 대한 불리한 영향력을 행사할지도 모를, 주관적인 사적 조건의 환영을 막아준다.⁸⁾ 나아가 공통감은 전달가능성 및 소통가능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공통감은 공공의 감각으로서 비판적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주체와 객체를 연결하고 반성적 판단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반성적 행위에서 모두의 표상방식을 설명해준다. 이는 인류의 집단 이성과도 같다. 미적 판단은 공공의 감각이요, 쾌의 감정에 근거한 판단이며, 반성은 서로의 마음에 상호 의존한다. 공통감은 직관이나 개념 없이 반성적이며, 반성행위를 감각으로 기술함으로써 일반적 감성이 된다. 비판, 계몽, 판단이 갖는 의미를 위해 공통감의 중요성은 이론 및 실천 철학 뿐 아니라 미와 예술의 철학을 위해 보다 넓은 암시를 던져 주고 있다. 칸트의 공통감은 포스트모더니티의 미적 경험에 적합한 반성적 판단의 새로운 모델을 정교하게 다듬은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 1924-1998)⁹⁾ 뿐 아니라 전체주의 이후의 정치철학

6) M.레이더/B.제섭, 앞의 책, 180쪽.

7) John H. Zammito, *The Genesis of Kant's Critique of Judgmen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2쪽.

8) Rudolf Eisler, *Kant Lexikon*, Hildesheim · Zürich, · New York: Georg Olms Verlag, 1984, 182쪽.

9) 장-프랑소와 리오타르, 『칸트의 숭고미에 대해』 김광명 역, 현대미학사, 2000 참고. 리오타르의 『칸트의 숭고미에 대하여』는 칸트의 『판단력 비판』 제23절에서 제29절 까지 논의된 숭고의 분석론에 대한 리오타르 특유의 포스트모던적 독해를 보여 준다. 특히 칸트의 맥락에서 감정의 차연을 끌어내면서 이를 아방가르드 정신과 연관짓고 있다.

에 대한 설명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려는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의 기획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¹⁰⁾ 이제 공감과 소통으로서의 일상의 미학, 취미판단의 전제로서의 공통감, 나아가 감정의 소통가능성으로서의 공통감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II. 일상 미학의 계기로서의 칸트의 공감과 소통

칸트는 미의 본질에 대한 기존의 해명이 불충분하거나 아예 어렵다고 보고, 미의 본질해명이 아니라 미의 판정능력에 대한 탐구를 행하며, 나아가 취미를 위한 규칙들을 수립하여 예술에 있어서의 판단기준들을 세우는 일을 수행한다.¹¹⁾ 이는 마치 우리가 음식 맛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고서 음식 맛을 일상적으로 판정하며 즐기는 것과 같다. 칸트는 미에 있어 객관주의 입장을 표방하면서도 개별성과 주관성을 늘 중심에 두고 생각한다. 여기에 그의 독특한 미적 태도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지평은 공감감과 이의 확장으로서 일상의 사교 현장에까지 이어진다. 미가 지닌 사회적 성격의 근간은 공감과 소통이다. 공감(共感)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 주장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이며, 소통(疏通)은 '서로 간에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거나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을 뜻한다. 공감은 서로 간에 공유하는 공통의 감각이요, 감정이다.¹²⁾ 우리의 일상이 일탈하지 않고 일상으로 이어지는 까닭은 아마도 공감에 근거한 소통을 공유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10) Howard Caygill, *A Kant Dictionary*,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s Inc, 1997, 114-115쪽.

11) Hannah Arendt, *Lecture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ed. and with an Interpretive Essay by Ronald Bein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Fifth Session, P. 32.

12) 공통의 감각이란 뜻의 독일어 Gemeininn에서의 'gemein'은 '공통의, 공동의, 보통의, 일상의, 평범한, 세속적인'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서나 부딪히는 범속한 것(das Vulgare) 혹은 일상적인 것(das Alltägliche)을 가리킨다.

리고 여기에서 도출되는 일상 미학의 중요한 계기는 곧 공감과 소통일 것이다. 만약 공감과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미는 사회적 성격을 상실하고 개인적 공간에 갇히고 말 것이다.

미적인 문제는 이성적 힘을 사용하여 철학 이전에 정의된 것에 대한 반응을 통해, 이성적 사유의 영역을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¹³⁾ 우리는 우리 삶의 일상적인 순간들에 미적으로 깊이 개입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도덕적 활동을 촉진시키는 미적 만족감을 얻는다. 미적 만족감은 인간심성을 순화하여 도덕적 심성과 만나기 때문이다. 이는 일상의 경험에 미적인 것이 스며들어 있기에 가능하다.¹⁴⁾ “일상생활에 대한 미적 반응을 특징지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판단과 주관적인 즐거움을 알리는 판단 사이의 구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판단에 대한 특별한 이론적 관심을 주장하게 된다.”¹⁵⁾ 일상생활은 미적 특성으로 가득하고, 어떤 일상의 경험은 미적 경험으로 이어진다. 칸트는 일상에서의 쾌적함과 아름다움을 구분하며, 특히 쾌적함을 상대적으로 경향성과 관련지우며, 아름다움을 무관심적인 쾌의 원천으로 본다. “쾌적한 것에 관해서는 누구나 자기 나름의 고유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¹⁶⁾ 쾌적한 것에 관한 판단은 개인감정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이에 반해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자기 자신으로서의 판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판단을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공통감이 개입된다. 앞서 언급한 인류의 집단이성과도 같다. 엄격하게 말하면 집단이성이라기 보다는 이성의 유추로서 모든 개개인에게 타당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발은 개별적인 단칭판단이지만, 전칭판단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된

13) Roger Scruton, “In Search of the Aesthetic”,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Vol.47, No 3, 2007, 232쪽.

14) Sherri Irvin, “The Pervasiveness of the Aesthetic in Ordinary Experienc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Vol.48, No.1. 2008, 44쪽.

15) Christopher Dowling, “The Aesthetics of Daily Lif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Vol.50, No.3 2010, 238쪽.

16) I. Kant, *Kritik der Urteilskraft*(이하 *KdU*로 표시), Hamburg: Felix Meiner, 1974, 7절 19쪽.

다고 하겠다.

『판단력비판』 6절에서 말하듯, 미란 개념을 떠나서 보편적 만족의 객체로서 표상된다. 미적 판단의 보편성은 개념으로부터 나오는 것일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이론적이거나 실천적 개념을 가리킨다.¹⁷⁾ 즉, 이론이성이나 실천이성에서 전제되는 개념에 근거를 둔 보편성이 아니라, 취미판단에는 주관적이지만 동시에 보편성에 대한 요구가 결부되어 있다. 취미판단에 있어서 표상되는 만족의 보편성은 단지 주관적이되, 타자들 간의 공감과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취미판단에 있어서 요청되는 바는 개념을 매개로 하지 않은 만족에 관한 보편적 찬동이다. 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미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취미판단은 이러한 동의를 규칙의 한 사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한다. 이 사례에 관한 확증을 취미판단은 개념에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동의나 미적 찬동에서 기대한다. 보편적 찬동이란 하나의 이념의 차원에 가깝다.¹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며 사는 것은 이러한 보편적 찬동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미적인 것과 연관하여 우리는 일상의 실천적 관심과는 거리를 둔 채 어떤 대상이나 활동에 무관심적 태도를 받아들인다.¹⁹⁾ 이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일상과 거리를 두며 관조하는 미적 태도이다. 칸트는 이런 식의 감상방식을 ‘자유미’라 부른다. 일상에선 우리는 미적인 것과 실제적인 혹은 실천적인 것을 완전히 통합하여 체험한다. 어떤 대상을 일정한 개념의 조건 아래에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경우엔 취미판단은 순수하지 못하다. 자유미(*pulchritudo vaga*)란 대상이 무엇이어서만 하는가에 관한 개념을 전제하지 않는다. 반면에 부수미 또는 의존미(*pulchritudo adhaerens*)는 개념을 전제하며, 개념에 따른 대상의 완전성을 전제한다. 일

17) 이른바 개념미술에선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사진이나 도표, 이미지 등을 이용해서 제작과정의 아이디어나 개념을 보여 준다.

18) I. Kant, *KdU*, 8절, 25-26쪽.

19) Yuriko Saito, *Everyday Aesthe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6쪽.

상에선 부수미보다는 자유미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미적 만족을 준다. 자유미는 개념에 의하여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유로이 그리고 그 자체로서 만족을 주는 대상이다. 자유미를 판정할 때에 그 취미판단은 순수한 취미판단이다. 객체가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하는가에 대해 어떤 목적의 개념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²⁰⁾ 칸트에 의하면, 어떤 사물을 그것의 기능을 규정하는 내적 목적에 관련시킬 때 그 사물의 다양에 관해서 느끼는 만족은 개념에 근거를 둔 만족이다. 자유미는 감각에 나타나는 것에 따라 판단을 내리고, 부수미는 사고(思考) 안에 있는 개념에 따라 판단을 내린다. 자유미는 순수하며 직접적인 취미판단을 내리고, 부수미는 응용된, 간접적인 취미판단을 내린다고 하겠다.²¹⁾

우리는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감성의 활동을 통해 세상을 접하게 되고 인식하게 된다. 특히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감성의 활동은 두드러진다. 대상에 대한 미적 인식과 학적 인식을 비교해보면, 전자는 혼연하며, 후자는 판명하다. 예술가의 정서와 감정은 작품을 통해 공통감의 전제 위에서 독자에게 전달되며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미적 판단의 토대로서의 공통감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감각이다. 공동체의 감각은 그로 인해 야기된 감정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게 한다. 인간존재는 감정에 대한 이론적 작업을 감정의 객관화라는 인식의 지평을 스스로 실현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²²⁾으로 옮겨 놓는다. 실천이란 느낌의 매개에 의해 실제로 일상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며, 우리의 감정은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실천과 직접 만나게 된다. 따라서 감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장소란 바로 인간의 자기 경험의 장(場)이요, 일상적 삶의 활동무대가 된다. 이러한 활동무대에서 우리는 감정을 공유하며 공동체적 감각을 향유한다.²³⁾

20) I. Kant, *KdU*, 16절, 49쪽.

21) I. Kant, *KdU*, 16절, 51-52쪽.

22) Wolfahrt Henckmann, "Gefühl", Artikel, *Handbuch philosophischer Grundbegriff*, Hg.v.H.Krings, München : Kösel 1973, 521쪽에서.

23) 김광명, 『칸트의 판단력 비판 읽기』, 세창미디어, 2012, 98쪽.

일상적 삶의 무대에서 우리가 겪는 경험이란 개별적이고 특수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 인식인 것이며, 이에 반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식이란 다만 가설적 구성물에 지나지 않는다. 경험이란 하나의 의식 안에서 여러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이들의 종합적인 결합에서 생긴다.²⁴⁾ 칸트에 의하면, 경험은 감각적 지각에 관계되는 대상의 인식이다. 그에게 있어 인식의 대상은 일반적인 규칙, 즉 범주에 의해 지각이 종합되면서 성립되는 것이고 그것은 일반적인 규칙에 따른 종합에서 온 성과라 할 것이다.²⁵⁾ 일반적 규칙은 그것이 지각에 관계되는 한, 하나의 인식을 이끈다. 이 때 지각은 일반적 규칙과 이에 대한 하나의 인식을 이어주는 관계적 위치를 차지한다. 경험적 세계에 대한 인식은 시간·공간의 직관형식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다양한 지각의 내용에 통일과 질서를 부여하는 순수오성의 범주에 의해서 구성된다. 이러한 범주 및 이것을 직관적인 지각내용에 적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순수오성의 원칙'을 구성적 원리라고 하는데, 이 원리는 한편으로는 받아들이는 것으로서의 직관형식과 다른 한편으로는 한계를 정해주는 통제적 혹은 규제적 원리로서의 이념으로 구별된다.²⁶⁾ 일상에서의 직관에 방향을 지어주는 기능을 이념이 행하는 것이다.

칸트에 의하면 유기적인 존재자는 기계적 인과관계와는 달리, 자신 속에 형성하는 힘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인간유기체의 삶은 동물적인 삶과는 달라서 그 자체가 이미 직접적인 삶이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반성이며, "삶의 유추"²⁷⁾이다. 삶을 유추하는 일은 일상을 통해 일상을 넘어서게 하며, 다른 사람의 체험을 자신의 체험으로 받아들이거나 이전의 체험을 다시 체험하는 것처럼 느끼는 삶의 추체험(追體驗)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삶이란 욕구능력의 법칙에 근거하여 행위하는 존재의 능력 일반인 것이며, 결국 삶 자체와

24) I.Kant, Prolegomena, 제22절, Akademie Ausgabe(이하 AA로 표시), IV, 305쪽.

25) A.Schöpf u.a., "Erfahrung", Artikel, Handbuch philosophischer Grundbegriffe, München : Kösel 1973, Bd.2, 377쪽 이하.

26) 김광명, 앞의 책, 99쪽.

27) I. Kant, *KdU*, 65절, 293쪽.

삶의 유추와의 구별은 곧 동물적 삶과는 구분되는 인간적 삶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이는 바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해주는 철학적 인간학의 단초(端初)가 된다. 대상에 의해 촉발되는 감각은 우리내부의 감정의 내용이 되며, 이것이 미의 판단과 관련될 때에는 곧 간접적이며 반성적이 된다. 주체와 대상 간에 놓여진 관계가 객관적이며 대상중심적이라는 사실은 대상에 대한 제일차적 의식이라 하겠고, 미적 판단은 행위중심적이고 반성적이어서 제이차적인 의식이다. 이것은 삶에 대한 인식이나 인식판단이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유추적인 구조인 것이다.²⁸⁾

삶에 대한 유추적인 구조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가능성 근거가 미적 판단으로서 취미이다. 일반적인 경험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판단의 출발이 곧 공통감각이다. 칸트에 의하면 감각이란 사물을 통한 감성의 정감에 달려 있으며, 이는 의식의 수용성에 대한 주관적 반응인 것이다. 감각을 통해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대상을 인식으로 가져온다. 따라서 감각은 우리 밖에 있는 사물에 대한 우리들의 표상을 주관하고, 그것은 경험적 표상의 고유한 성질을 이루게 한다. 감정은 순수한 주관적 규정이지만, 감관지각은 객관적이고, “대상을 표상하는 질료적 요소”²⁹⁾이다. 이 질료적 요소에 의해서 어떤 현존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칸트의 감각은 “우리가 대상에 의해 촉발되는 방식을 통해 표상을 얻는 능력”³⁰⁾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감각을 통해 주어진 시간 안에서 현상과 관계를 맺는다. 감각은 우리로 하여금 대상을 직관할 수 있게 하는 직접적인 소재인 것이며, 공간 속에서 직관되는 것이다. 이는 시간과 공간에 걸쳐있는 실질적이며 실재적인 것이다.³¹⁾

감각이란 우리가 시간 및 공간속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그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감관의 표상이요, 경험적 직관이다. 이런 까닭에 감각이란 그 본질

28) 김광명, 앞의 책, 100쪽.

29) I.Kant, *KdU*, Einl, XL XL.

30) Ludwig Landgrebe, “Prinzip der Lehre vom Empfinden”, *Zeitschrift für Philosophische Forschung*, 8/1984, 199쪽 이하에서.

31) 김광명, 앞의 책, 101쪽.

에 있어 경험적인 실재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감각은 대상이 우리의 감각기관에 미치는 영향이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의 환경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결과를 기술해준다. 따라서 감각은 일상생활에서 자아와 세계가 일차적으로 소통하고 전달하며 교섭하는 방식이다. 또한 감각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의 고유한 성질을 결정해준다. 여기에서 감각의 성질 그 자체는 경험적이며 주관적이다. 감각은 직관의 순수한 다양성과 관계하고 있으며, 현상이 비로소 일어나는 장소와도 관계를 맺고 있다. 감관대상을 감각함에 있어서 꽤나 불쾌를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현상의 다양함은 더욱 두드러진다.³²⁾ 칸트의 대전제는 “감각은 보편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만큼만 가치를 지닌다”³³⁾는 것이다. 꽤 또한 보편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때에 무한히 증대된다. 전달되지 않고 소통되지 않은 감각은 가치를 잃게 된다. 감각의 전달로서의 공감과 소통은 일상의 유대를 강화하고 사회성을 유지시켜 주며, 일상에 대한 미적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

Ⅲ. 취미판단의 근거로서의 공통감

취미란 미를 판정하는 능력으로서, 주어진 표상과 결합되어 있는 감정들의 전달가능성을 선천적으로 판정하는 능력이다. 하나의 대상을 아름답다고 부르기 위해 취미판단의 분석이 필요한 바, 여기에 네 계기, 곧 성질, 분량, 관계 및 양상이 미적 판단력의 분석론, 즉 미의 분석론에서 다루어진다. 칸트에 의하면, 취미판단은 무엇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가 혹은 불만족을 주는가를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감정에 의해서 규정하는, 그러면서도 보편타당하게 규정하는 하나의 주관적 원리인 공통감을 지니고 있다. 공통감을 전제로 해서만 취미판단을 내릴 수 있다. 공통감은 어떤 외적 감정이 아니라

32) 김광명, 앞의 책, 101-102쪽.

33) I.Kant, *KdU*, 41절, 164쪽.

오성과 구상력이 자유로이 유희하는 중에 나온 결과이다.³⁴⁾ 취미판단이 주장하는 필연성의 조건은 공통감의 이념이다.

인식과 판단은 거기에 수반되는 확신과 더불어 보편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주어진 대상이 감관을 매개로 하되, 구상력을 움직여 직관한 내용의 다양함을 종합하도록 한다. “감정의 보편적 전달가능성은 하나의 공통감을 전제한다. 이 공통감을 우리는 심리학적 근거에서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보편적 전달가능성의 필연적 조건으로서 상정한다.”³⁵⁾ 따라서 우리는 공통감을 의식이나 욕구, 본능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취미판단에 있어서 사유되는 보편적 동의의 필연성은 주관적이지만, 공통감을 전제로 해서 객관적인 것으로서 표상된다. 미적 판단의 기초는 개념에 있지 않고 공통의 감정에 있다. 공통감은 일종의 당위를 내포하고 있는 판단의 정당성을 확립한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판단과 일치할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해야만 함을 뜻한다. 여기서 칸트는 “나는 나의 취미판단을 이 공통감에 의한 판단의 한 실례로 제시하고, 그런 까닭에 나는 이 취미판단에 대해 범례적 타당성을 부여한다”³⁶⁾고 말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실례를 보며 생활한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실례는 타인에게도 범례(範例)가 되어 보편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상적인 규범으로서의 공통감을 전제하여 우리는 그 규범에 합치되는 판단 및 그 판단에 표현되는 만족을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규칙으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논리적 인식이 지닌 판명함에 비해 감성적 인식은 혼연함을 드러내게 되는데, 공통감은 감성계의 고유한 인식론적 위상과 그것의 인식적 판명함의 관계에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는 바움가르텐(Alexander Gottlieb Baumgarten, 1714-1762)이 말하는 이성의 유비 혹은 유추로서 감성적 인식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과 연관된다. 감성적인 진리는 가상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진리이다. 여기서 허용된 가상은 거짓이 아니라

34) I. Kant, *KdU*, 20절, 64-65쪽.

35) I. Kant, *KdU*, 20절, 66쪽.

36) I. Kant, *KdU*, 20절, 67쪽.

비진실 또는 비진리이다. 이를테면, 시적 진리는 개별자에 대한 진실한 제시이고, 개연성 혹은 가상의 진리이다. 시의 내용은 항상 어느 정도 지각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념을 통해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적인 것은 미의 평가에 있어 주관적 측면을 내포하며 개념으로부터 자유롭다.³⁷⁾ 또한 감성적 가상을 인식하는 관찰자가 대상에 대해 무관심한 방식으로 만난다고 했을 때에 가상과 무관심의 관계는 실제적, 이론적인 것과의 분명한 거리를 뜻한다. 이 때, 가상개념은 무관심성을 전제한다. 감성적 진리가 즐거움을 동반하며, 통일성을 지각하고 완전성 개념의 내적 구조에 의존한다고 볼 때, 이는 감성적 이미지들이 이루는 독특한 질서원리의 결과로 보인다. 감성적 이미지들은 공통감의 원리에 근거한 사교성의 문제를 담고 있다.

공통감은 모호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취미라는 이름 아래 판단을 내릴 때 일상생활에서 이를 전제하고 있는 바이다. 칸트는 이와 연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공통감이 경험을 가능케 하는 구성적 원리로서 사실상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성의 원리가 더 높은 목적을 위해 미리 우리 안에 공통감을 만들어 놓고자 하여 우리를 규제하는 원리로 삼은 것인가. 따라서 취미란 근원적 자연적 능력인가, 아니면 단지 습득되어야 할 인위적 능력의 이념에 불과한 것인가. 그리하여 취미판단은 보편적 동의를 요구하면서도 사실은 감각방식의 그와 같은 일치율을 낳는 이성의 요구인가. 모든 사람들의 감정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특수한 감정과 융합한다고 하는 객관적 필연성은 곧 그러한 감정에 있어서 합치에 도달할 가능성을 뜻하는가. 취미판단은 이 원리가 적용된 하나의 실례를 드는 것에 불과한가.³⁸⁾ 칸트는 이런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면서도 이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밝히려고 하지 않거니와 또한 밝힐 수도 없다고 말한다. 중요한 건 공통감의 이념으로 이들 상호간의 문제를 통합하여 살피는 일이다.

보통의 인간오성, 즉 상식은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이해

37) Roger Scruton, 앞의 글, 233쪽.

38) I. Kant, *KdU*, 20절, 68쪽.

력, 판단력, 사려분별 등으로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언제나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다. 우리는 공통감을 공통적 감각이 지향하는 이념으로 이해해야 한다.³⁹⁾ 칸트는 공통감을 취미판단의 능력과 동일하게 본다. 칸트에 의하면, “취미를 감성적 혹은 미적 공통감(sensus communis aestheticus)이라고 부르고, 보통의 인간오성, 즉 상식을 논리적 공통감(sensus communis logicus)이라고 부른다. 취미란 주어진 표상에 관하여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개념의 매개없이 보편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판정하는 능력이다.”⁴⁰⁾ 취미는 주어진 표상과 개념의 매개없이 결합되어 있는 감정들의 전달 가능성을 선천적으로 판정하는 능력이다. 칸트가 제기한 공통감은 인간감정의 보편성 및 취미판단의 합의와 연관하여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칸트의 공통감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384-322 B.C.)에 있어 통일된 감각능력과도 유사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통감을 지각의 중심능력으로 본다. 이는 대상을 반성하게 하고 다양한 감각의 활동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그리하여 공통감은 상호주관적 통일성, 사회성, 사교성과도 연결된다.⁴¹⁾

칸트에 있어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판단에서 논의되는 필연성은 범례적인 필연성이다. 이 필연성은 우리가 명시할 수 없는 어떤 보편적 규칙에서 하나의 실례처럼 여겨지는 판단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데서 온다.⁴²⁾ 물론 범례의 적용현장은 일상생활이다. 그런데 보편적 규칙이 구체적인 실제의 보기로서 적용되며, 범례로서 간주된다. 객관적 판단이나 주관적 판단과는 달리 취미판단은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만 쾌적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것을 결정하는 주관적 원리를 요구하며, 보편타당성을 지닌다. 능력으로서의 공통감은 반성적 판단력이다. 취미판단에 있어서의 감정은 마치 그것이 의무인 것처럼 모두에게 기대된다. 공통감은 인식의 보편적 전

39) I. Kant, *KdU*, 40절, 156-157쪽.

40) I. Kant, *KdU*, 40절, 160쪽.

41) Jennifer Kirchmeyer Dobe, "Kant's Common Sense and the Strategy for a Deduction",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68:1 Winter 2010, 47-48쪽.

42) I. Kant, *KdU*, 18절, 62-63쪽.

달가능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달리 말하면, 이는 경험을 공유할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공통감은 인식의 보편적 전달가능성의 필요조건으로 전제되며, 공통감은 취미판단에 의해 전제된다.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이에 근거하여 취미판단을 내린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⁴³⁾

칸트는 미적 판단의 연역에 대한 시도를 미의 분석의 제4계기에서 행하고 있으며, 미적 판단에서의 필연성의 조건을 공통감의 이념으로 본다. 쾌적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주관적 원리인데, 이는 개념에 의하지 않고 감정을 통해서이다. 미적 판단의 연역은 우리가 공통감을 전제하는 이유에 대한 증명에 의해 제공된다. 이 때 공통감은 원리로서 보다는 오히려 감정으로서 언급된다. 공통감은 쾌의 감정을 공유하고, 그러한 감정이 공유되도록 판정하는 능력이다. 만약 공통감이 보편타당성이 요청하는 바에 따른 단지 반성의 영향이나 쾌의 감정의 결과라면, 우리는 상호주관적 타당성에 대한 선천적 요구에 대한 원리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공통감이 감정도 아니고 원리도 아니며, 단지 취미 자체의 능력이라면, 우리 자신의 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도록 하는 원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어떤 의미를 받아들이든, 우리는 공통감으로 인해 우리 자신의 미적 반응을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게 넘길 수 있는 것이다.⁴⁴⁾ 따라서 공통감은 감정이자 원리인 취미 자체의 능력인 셈이다.

취미판단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밝히기 위한 공통감의 연역은 상호주관적 타당성이다. 취미란 개인적 욕망이나 욕구와는 달리 사회 안에서만 문제가 된다. 따라서 취미와 연관된 반성과 판단을 요구하게 된다.⁴⁵⁾ 취미판단의 주체는 그의 판단이 단지 사적이지만 ‘보편적인 목소리’로 말하고 공통감을 표현한다. 이는 보편성과 필연성을 요청하는 근거가 된다. 아름다움을 통해 이성 안에 감정의 근거를 놓는 인간에 고유한 내적 성향이 공통감인 것이다.⁴⁶⁾ 일상의 모든 사람이 거의 예외없이 미적인 것에 대해 느끼고 판단하는

43) I. Kant, *KdU*, 22절, 67쪽.

44) Paul Guyer, *Kant and the Claims of Tast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280-282쪽.

45) John H. Zammito, 앞의 책, 31쪽.

것을 표현하는 바, 우리는 이를 공통감을 통해 공유한다. 공통감의 무규정적 규범은 실제로 우리에게 전제된다.

Ⅳ. 감정의 소통가능성으로서의 공통감

어떤 일상인가는 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에 따라 구체적으로 매우 다양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일상이라 함은 상식 수준에서 지레 짐작되는, 항상 있는 날이다. 비일상이나 탈일상은 소통의 단절이요, 사회성의 상실로 이어진다. 칸트는 인간이 서로 소통해야 할 필요성을 뜻하는 소통가능성을 공통감과 연관하여 제시했다. 감정의 소통가능성이란 곧, 전달가능성이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의 39절에서 감각의 전달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실제로 동일한 감관 대상을 감각할 때에도 느끼게 되는 쾌적함 또는 불쾌적함은 사람들에게 따라 매우 다르다.⁴⁶⁾ 그런데 취미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객체에 관한 자기의 만족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개념의 매개 없이 자신의 감정을 무리없이 전달할 수 있다. 미적 판단에 대한 보편적 동의나 요청의 근간으로서의 공통감은 사교성에도 연결되는 바, 이는 칸트미학을 사회정치적 영역으로 까지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를테면, 아렌트는 정치적 활동영역의 문제를 칸트의 실천이성의 원리가 아니라 판단이론, 특히 반성적 판단을 토대로 하여 전개한다. 칸트의 미적 판단력은 개별사례가 범례적으로 타당하게 된 근거를 찾아 상호주관적인 성격을 마련하여 보편적 원리를 부여한다. 칸트에게서 판단은 특수자와 보편자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이다. 사유하는 자아가 일반자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특정 현상들의 세계로 돌아갈 때, 정신은 그 특정 현상들을 다룰 새로운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 새로운 능력인 판단력을 돕는 것은 규제적 이념들을 가진 이성이다.⁴⁸⁾ 칸

46) John H. Zammito, 앞의 책, 94-95쪽.

47) I. Kant, *KdU*, 39절, 153쪽.

트에서의 판단력은 구체적 특수를 보편적 일반 아래에 포함된 것으로 사유하는 능력이다.

인간 현존재는 최고의 목적 그 자체를 자신 속에 가지고 있는, 이른바 그 스스로 목적이 된다.⁴⁹⁾ 다수의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공통감, 곧 공동체적 감각을 지니며 살고 있다. 또한 “계몽의 시대는 이성을 공적(公的)으로 사용하는 시대이다.”⁵⁰⁾ 따라서 자신의 이성을 모든 면에서 공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드는 일이 아마도 계몽주의 시대를 살았던 칸트에게도 필요했을 것이다. 공통감은 계몽주의 시대에 생활을 영위한 세계시민이 지닌 사유방식의 밑바탕이기도 하다⁵¹⁾. 철학적 타당성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칸트가 취미판단에 요구했던 바, 일반적 소통가능성이거니와, 인간 자체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인류의 자연스런 소명인 까닭이다.⁵²⁾

칸트에 있어 소통 및 전달가능성을 이끄는 능력이 미적 판정능력으로서의 취미이다. 미적 대상을 누구나 경험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소통 및 전달가능성이다. 미적 대상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공간은 공적 영역으로서 행위자나 제작자 뿐 아니라 비평가와 관찰자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다. 공적인 영역이란 소통이 가능한, 열린 공간이다. 미는 공적 영역인 사회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관심을 끈다. 칸트의 예를 들어보면, “무인도에 버려진 사람은 자기 혼자라면 자신의 움막이나 자기 자신의 몸을 치장하지 않을 것이다. 꽃을 찾거나 더구나 그것을 심어서 그것으로 몸을 꾸밀 일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단지 인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나뉠이로 기쁨있는 인간이고자 하는 생각은 오직 사회에 있어서만 그에게 떠오른 것이다.”⁵³⁾ 사람들은 다른

48) Hannah Arendt, *The Life of the Mind*, New York: A Harvest Book, 1978, One/Thinking, Postscriptum.

49) I. Kant, *KdU*, 84절, 398쪽.

50) Hannah Arendt, *Lecture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ed. and with an Interpretive Essay by Ronald Bein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Sixth Session, 39쪽.

51) Thomas Wanninger, “Bildung und Gemeinsinn- Ein Beitrag zur Pädagogik der Urteilskraft aus der Philosophie des sensus communis,” Diss. Universität Bayreuth, 1998, 78쪽 이하.

52) Hannah Arendt, 앞의 책, Sixth Session, 40쪽.

사람들과 함께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나 대상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한다. 공통감은 칸트가 가장 사적이고 주관적인 감각인 것처럼 보이는 감각 속에서 주관적이지 않은 어떤 것이 있음을 깨달은 결과물이다.⁵⁴⁾ “우리는 우리의 취미가 다른 사람의 취미와 어울리지 않는다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또 한편 우리는 놀이를 하다가 속이게 되면 자신을 경멸하게 되지만 들키게 되면 부끄러워한다고 말한다. 취미의 문제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편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⁵⁵⁾ 이렇듯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공유하는 공통감은 자기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전달되는 실천 덕목이다.

우리는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우리의 특별한 주관적인 조건들을 넘어서, 우리 자신의 반성작용에 근거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의 표상방식을 사고해야 한다.⁵⁶⁾ 객관성과 주관성을 상호 연결해주는 요소가 곧 상호주관성이다. 취미판단은 다른 사람들의 취미를 성찰하는 가운데, 그들이 내릴 수 있는 가능한 판단들을 아울러 고려하게 된다. 판단 주체로서의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한 구성원으로서 판단하는 것이지 이를 벗어난 탈구성원으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판단할 때 나는 이성적 존재자들과 더불어 거주하고 있는 것이지 한갓된 감각장치들과만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⁵⁷⁾ 이성과의 유비적인 관계에 있는 감성은 공통적 감각의 이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감각은 지각의 실재적인 것으로서 인식과 관계를 맺을 때에 이를 감관의 감각이라고 한다.”⁵⁸⁾ 누구나가 우리의 감관기관과 동일한 감관기관을 갖고서 인식과 관계를 맺는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감각작용이 일반적으로 소

53) I.Kant, *KdU*, 41절, 163쪽.

54) 김광명, 앞의 책, 107쪽.

55) I.Kant, “Reflexionen zur Anthropologie”, no.767, in *Gesammelte Schriften*, Prussian Academy ed., 15: 334-335, Hannah Arendt, 앞의 책, Eleventh Session, 67쪽.

56) I.Kant, *KdU*, 40절, 157쪽.

57) Hannah Arendt, 앞의 책, Eleventh Session, 67-68쪽.

58) I.Kant, *KdU*, 39절, 153쪽.

통가능하다는 것은 옳다. 공통감이란 모든 사람에게 아주 사적인 가운데에서 동일한, 이를테면 다른 감각들과 소통을 이루어 같은 감각이 됨을 뜻한다. 공통감은 특히 인간적인 감각인 바, 의사소통의 매체로서의 언어가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요구를 한다거나 공포나 기쁨 등을 표현하기 위해 반드시 언어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소통은 언어외적 몸동작이나 표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⁵⁹⁾ 이를테면, “광기의 유일한 일반적 증상은 공통감의 상실이며, 자기 자신만의 감각을 논리적으로 고집스럽게 우기는 것인데, 자신의 감각이 공통감을 대신한다.”⁶⁰⁾ 여기에 예로 든 광기(狂氣)는 미친 듯한 기미 또는 미친 듯이 날뛰는 기질이다. 이로 인해 소통의 단절을 가져오며, 이는 곧 공유할 감각의 상실이요, 곧 일상성의 상실이다.

공통감을 우리는 모두에게 공통적인 감각이라는 이념으로 이해한다. 이는 사유하는 중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재현하는 방식을 스스로의 반성 가운데 선천적으로 고려하는 판단기능이다. 이 가운데 자신의 판단을 인간성의 총체적인 이성과 비교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판단을 다른 사람들의 실체가 아닌,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판단과 비교함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다른 사람의 자리에 놓음으로써, 우리 자신의 판단에 유연적으로 부여된 한계로부터 추상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⁶¹⁾ 인간성의 이념은 공통적인 감각, 즉 공통감의 전제아래 가능하다. 취미는 일정부분 공동체가 공유하는 감각인데, 여기서 감각은 정신에 대한 반성의 결과를 뜻한다. 이 반성은 마치 그것이 감각작용인 것처럼 그리고 분명히 하나의 취미, 즉 차별적이고 선택적인 감각인 것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⁶²⁾ 사람의 공통적 감각이 자신의 심성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만일 사회에 대한 충동이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그리고 사회에 대한 그의 적합성과 그에 대한 성향, 즉 사교성이 사회적 존재

59) 김광명, 앞의 책, 109쪽.

60) I.Kant, Anthropologie, in *pragmatischer Hinsicht*, herausgegeben von Reinhard Brandt, Hamburg: Felix Meiner, PhB 490, 2000, 53절.

61) I.Kant, KdU, 40절, 157쪽.

62) Hannah Arendt, 앞의 책, Twelfth Session, 71-72쪽.

로서의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라면, 그래서 그것을 인간성에 속하는 속성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취미를 우리의 감정을 모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판단의 기능으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취미를 모든 사람의 자연적 성향이 욕구하는 것을 진작시키는 수단으로 간주하게 된다.⁶³⁾

사교성은 우리가 일상성 안에서 타자와 더불어 살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성향이다. 인간은 상호의존적이어서 인간적 필요와 욕구를 동료인간에 의존하게 된다. 사람은 자신만의 관점을 벗어나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을 때에만 소통할 수 있다. 소통가능한 사람들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대상의 가치 또한 커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갖는 쾌감이 미미해서 그 자체로는 어떤 특정한 관심을 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의 일반적 소통가능성의 관념은 거의 무한하다고 할 정도로 그 가치를 증대시킨다. 사람은 자신의 공동체 감각, 즉 공통감에 이끌려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판단을 내린다. 자유로이 행위하는 인격적 존재라 하더라도 혼자 외롭게 식사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은 점차 쾌활함을 잃게 되고 말 것이다.⁶⁴⁾ 이는 바람직한 일상이 아니다. 인간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유적(類的)인 존재로서만이 이성 사용을 지향하는 자신의 자연적 소질을 완전히 계발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 속에서만 자신을 인간 이상으로 느끼기 때문에 자신을 사회화하려는 경향을 갖는다.⁶⁵⁾

“미는 경험적으로 오직 사회에 있어서만 관심을 일으킨다. 그리고 만일 사회에 대한 본능이 인간에게 있어서 본연의 것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사회에 대한 적응성과 집착, 즉 사교성은 사회를 만들도록 이미 정해져 있는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조건에, 따라서 인간성에 속하는 특성임”⁶⁶⁾을 우리는 안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감정의 전달가능성, 즉 다른 사람과의 사교

63) 김광명, 앞의 책, 111쪽.

64) W.Weischedel, Kant Brevier(손동현/김수배 역, 『별이 충충한 하늘 아래 약동하는 자유』, 이학사, 2002)에서 인용, 칸트의 인간학 VI 619 이하.

65) W.Weischedel, 앞의 책, 칸트의 속언에 대하여, VI 166 이하.

66) I.Kant, *KdU*, 41절, 162쪽.

성 안에 더불어 같이 있는 관계적 존재로 규정된다. 사교성이란 다른 사람과 사귀기를 좋아하는 성질로서 사회를 형성하려는 인간의 특성이다. 여기서 사교성이란 말은 사회성이라는 용어 보다는 사회적 가치지향의 측면에서 다소 간에 소극적으로 들리지만, 미적 정서를 사회 속에서 보편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칸트는 이러한 전달가능성의 근거를 경험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자연적이며 사교적인 경향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의 사교적인 경향은 감성적 공통의 감각, 즉 공통감과 관련된다. 만일 우리가 사회에 대한 본능적 지향을 인간에게 있어 본연의 요건이라 한다면, 우리는 취미를 우리의 감정조차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체의 것을 판정하는 능력으로 간주해야 하며,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자연적 경향성이 요구하는 것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동물적 성향이 기본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본능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인간은 학적 인식과 더불어 그리고 미적 인식을 통해 심성을 가꾸며 도덕화하고 사회화한다. 도덕화란 곧 사회규범과 더불어 사는 사회화를 뜻한다. 말하자면 감관기관을 통해 우리는 현상으로서의 환경에 접하여 이를 느낄 수 있고 감정의 사교적 전달가능성을 통해 공공의 안녕과 행복의 상태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러할 때 감각은 그것의 경험적 연관체와 관련을 맺게 되는데, 이 때 감각은 인식을 위한 다양한 소재를 제공해주며 충족시켜준다. 감성적 인식은 이성적 인식의 제한된 폭을 다양하게 넓혀주고 보완하는 일을 한다.⁶⁷⁾

V. 맺는 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내용이란 보통 사람의 삶을 통해서 거의 모

67) 김광명, 앞의 책, 113쪽.

든 인간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것들이다. 오늘날 예술과 일상의 경계가 무너지고, 많은 작가들이 일상생활에서 보고 겪을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을 토대로 작업을 한다. 때로는 일상생활의 부분인 오브제를 예술영역 안으로 끌어 들이며, 작가 자신의 일상적 삶을 이끌어가는 신체 감각의 움직임을 예술의 소재로 활용하기도 한다. 일상의 미학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지각할 수 있는 미적인 것에 대한 미학적 탐색이다. 그런데 미적인 것에 대한 정서, 지각 및 경험을 보편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하는 근거로서 칸트의 공통감이 있다.

칸트미학에 있어 소통 및 전달가능성을 이끄는 능력이 미적 판정능력으로서의 취미이다. 미적 대상에 대한 정서와 지각을 누구나 경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소통가능성이다. 공통감은 무엇이 만족을 주는가를 감정에 의해 규정하는 주관적 원리이지만, 그것은 또한 공동체적 감각이자, 이념으로서 구성된 상호간에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감과 소통은 일상의 단절을 극복하고 일상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원동력이다. 공적인 영역이란 소통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서, 행위자나 제작자 뿐 아니라 비평가와 관찰자가 함께 이루는 공간이다. 전통미학에서와는 달리 일상의 미학에선 미적인 것에 대해 행위자와 제작자, 비평가와 관찰자는 동시에 서로 관여하고 참여한다. 일상에서의 미적인 것에 대한 공감과 소통은 일상의 미학의 주된 내용이다. 미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게 하고 소통하게 한다. 칸트에게 있어 미를 판정하는 능력인 취미판단의 전제는 공통감이다. 무엇보다도 공통감이 있기에 다양한 감정의 소통이 가능하며, 일상 속에서 사회성을 일깨워 준다.

〈참고문헌〉

- Arendt, Hannah, *The Life of the Mind*, New York: A Harvest Book, 1978.
- Arendt, Hannah, *Lecture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ed. and with an Interpretive Essay by Ronald Bein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 Dobe, Jennifer Kirchmeyer, "Kant's Common Sense and the Strategy for a Deduction",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68:1 Winter 2010, 47-60.
- Dowling, Christopher, "The Aesthetics of Daily Lif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Vol.50, No.3 2010, 225-242.
- Eisler, Rudolf, *Kant Lexikon*, Hildesheim·Zürich·New York: Georg Olms Verlag, 1984.
- Guyer, Paul, *Kant and the Claims of Tast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 Henckmann, Wolfahrt, "Gefühl", Artikel, *Handbuch philosophischer Grundbegriff*, Hg.v.H.Krings, München : Kösel 1973.
- Irvin, Sherri, "The Pervasiveness of the Aesthetic in Ordinary Experienc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Vol.48, No.1. 2008, 29-44.
- Kant, I., *Prolegomena*, Akademie Ausgabe, IV, 1912.
- Kant, I., *Kritik der Urteilskraft*, Hamburg: Felix Meiner, 1974.
- Kant, I., *Anthropologie in pragmatischer Hinsicht*, herausgegeben von Reinhard Brandt, Hamburg: Felix Meiner, PhB 490, 2000.
- Kim, Kwang Myung, "The Aesthetic Turn in Everyday Life in Korea", *Open Journal of Philosophy*, 2013, Vo.3, No.2, 359-365.
- Landgrebe, Ludwig, "Prinzip der Lehre vom Empfinden", *Zeitschrift für Philosophische Forschung*, 8/1984.
- Lefebvre, Henri /Christine Levich, "The Everyday and Everydayness", *Yale French Studies*, No.73, 1987, pp. 7-11.
- Saito, Yuriko, *Everyday Aesthe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Schöpf, Alfred, "Erfahrung", Artikel, *Handbuch philosophischer Grundbegriffe*, Bd.2, München : Kösel 1973.
- Scruton, Roger, "In Search of the Aesthetic",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Vol.47,

No 3, 2007, 232-250.

Wanninger, Thomas, "Bildung und Gemeinsinn- Ein Beitrag zur Pädagogik der Urteilkraftaus der Philosophie des sensus communis," Diss. Universität Bayreuth, 1998.

Weischedel, Wilhelm, Kant Brevier, 손동현/김수배 역,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약동하는 자유』, 이학사, 2002.

Zammito, John H., *The Genesis of Kant's Critique of Judgmen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김광명, 『칸트 판단력비판 읽기』, 세창미디어, 2012.

〈Abstract〉

Everyday Aesthetics as Common Sense and Communication -in Relation to Kant' Common Sense

Kim, Kwang-Meong

This paper discussed the shift from traditional aesthetics to everyday aesthetics in connection to Kant's common sense. After the boundary between art and life is demolished, art and everyday life we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There will be no more a boundary between art, non-art, anti-art and aesthetics, non-aesthetics, anti-aesthetics. Hence, the aesthetic will be only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aesthetics of everydayness. And the aesthetic is perceived by our attitudes and experiences, and is permeated into our daily lives. I discussed the subject from the three aspects, everyday aesthetics as sympathy and communication, common sense as a presupposition of judgment of taste, common sense as a communicability of feeling.

Common sense is the ability for universal emotion rather than the individual emotion. Common sense is not the mere sense, but it is the idea of communal sense and the objective validity for the judgment of taste. It relies on the possibility of the universal delivery as well. Today's aesthetics is the aesthetics of the everyday. Common sense plays a role to make everyday keep its everydayness on behalf of sympathy and communication.

keywords : everyday aesthetics, common sense, communal sense, sympathy, communication, everydayness